

### F-4 팬텀 퇴역식

‘하늘의 도깨비’ ‘미고기 킬러(MiG Killer)’로 불리며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했던 F-4E 팬텀(Phantom) II 전투기의 임무가 6월 7일 공식 종료됐다. F-4E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예전역장을 받고 55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영공 수호 임무를 내려놓았다.

공군은 이날 수원기지에서 신 장관 주관으로 ‘F-4 팬텀 퇴역식’을 거행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역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팬텀 역대 조종사·정비사, 방산업체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명예로운 퇴역을 기념했다.

신 장관은 축사에서 “팬텀과 함께한 지



난 55년은 대한민국 승리의 역사였다”면서 “자유세계의 수호자인 팬텀이 도입되자 대한민국은 단숨에 북한 공군력을 압도했으며, 이때부터 북한 공군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힘줘 말했다.//

###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2024 개최

공군은 5월 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Aerospace Conference) 2024’를 개최했다.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공군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콘퍼런스에는 군 내외 주요 인사와 산·학·연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항공우주무기체계·민군협력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항공우주무기체계 세미나에서는 △공군 미래 전력의 세 가지 키워드 △미래 전장 지배를 위한 항공우주 무기체계 기술기획 방향 △유·무인 전투기



체계를 위한 조종사 업무 부하 경감 기술 소개 △2040년대 전투임무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발전방향 △첨단 항공엔진 소모 기술 분석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민군협력 세미나에서는 스텔스 무인기 기술 연구개발 동향 △무인 드론의 국방 분야 활용 방안 △미래 전영역작전 상호운용성 및 최신 전자전 시스템 등 12개의 주제로 항공우주 관련 민간기업의 신기술 발표가 있었다.//

### 공군 창군 75주년 정기 음악회

공군은 6월 13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호국보훈의 달과 공군 창군 75주년을 맞아 ‘2024 공군 정기음악회’를 개최했다.

공군군악대와 주한 미8군 군악대가 화음을 맞춘 음악회는 미래로 도약하는 공군의 위상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F-4 팬텀의 명예로운 퇴역을 국민과 함께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한 음악회에는 역대 공군참모총장, 주한미군·무관단, F-4 예비역 조종사·정비사 등 1300여 명



이 참석했다. 공연은 강아람 아나운서와 임동현(배우 이도현) 상병의 사회로 진행됐다.//

### 2024년도 예비역 정책간담회

공군 예비역의 공군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친공군화를 위한 2024년도 예비역 정책간담회가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12개 부대에서 17차에 걸쳐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책간담회는 임관기수별, 및 신분별(준/부사관, 군무원 등)로 공군본부 기본계획하에 행사장소별로 각 부대장이 주관하여 공군정책과 부대 현황 보고, 체력단련, 문화탐방 및 만찬을



함께 함으로써 공군출신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공군AI신기술융합센터 개소

항공우주무기체계 개발, 병력자원 감소 대비 등 미래 공군 비전 실현을 위한 ‘공군AI신기술융합센터(공군AI센터)’가 5월 29일 문을 열었다.

공군은 AI센터를 앞서워 서울시, 민간기업과 협업해 국방혁신 및 K방산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는 이 총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정승 KAIST AI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AI허브 메인센터는 AI 산업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AI 인재를 양성하고, 특화 기업을 발굴하며, 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공군은 이곳에 공군AI센터를 설치하고, 정식 개소한 달 전부터 임무에 돌입했다.//

### 공군 우주작전전대 창설

초소형위성체계 등 신규 우주전력을 운용할 공군 우주작전부대가 6월 30일 확대 창설됐다. 부대는 기존 대대(중령)급에서 전대(대령)급으로 확대된 것으로, 단순히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운용 전력도 추가되는 등 임무가 더욱 막중해졌다.

공군은 이날 “우리 군의 우주영역인식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공군우주작전전대가 창설돼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2019년 위성감시통제대로 시작된 공군 우주작전조직은 2022년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OSS)가 전력화되며 우주작전대



대로 거듭났고, 이번에 전대로 확대·개편됐다.우주작전전대는 향후 전력화될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초소형위성체계 등 우주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 한미 공군 5세대 전투기 첫 연합훈련

한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들이 첫 연합 훈련을 전개, 상호기동성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다.공군은 5월 16일 중부지역 상공에서 미 공군과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프리덤 나이트 2대와 미 공군의 F-22 램퍼 2대가 참가했다. F-35A와 F-22가 기본전투기동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은 F-35A와 F-22가 공격과 방어 임무를 번갈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국 조종사들은 서로의 기체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근접 거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며 최상의 기동성을 발휘했다. 또 최신 전술을 공유하며 연합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높였다.//

### 공군 ‘조종사의 날’ 행사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약전고 투했던 선배 조종사들을 기억하는 ‘조종사의 날’ 기념행사가 공군 각 부대에서 열렸다. 조종사의 날은 6·25전쟁 당시 우리 공군의 첫 출격일인 1950년 7월 3일을 기념하고자 지난 2008년 제정됐다.

공군 11전투비행단(11전비)은 7월 5일 비행단 전 조종사와 지휘관·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조종사의 날 행사를 열고 조국 수호 결의를 다졌다.

19전비 조종사들은 7월 4일 기지 내 은성 기립터를 찾아 선배 조종사들의 희생정신



을 기렸다. 조종사의 신조를 제창하며 전투 조종사로서 갖춰야 할 군인정신도 되새겼다.//

### 김신 공군참모총장 8주기 추모식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고(故) 김신 장군 서거 8주기를 기리는 추모식이 5월 1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됐다.

김신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이영수 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2016년 5월 19일, 94세를 일기로 별세한 김신 장군은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1922년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항일 항공독립운동을 펼쳤다.

광복 이후인 1948년에는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2기로 입관해 1949년 공군 창설에 이바지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조종사로 참전해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평양 대폭격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고인은 정전 이후 공군 10전투비행단장, 공군참모차장 등을 거쳐 제6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했다. 참모총장 재임 당시 전투조종사 중등비행훈련 강화를 위해 T-28 훈련기를 도입했으며, 공군의 다양한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공군의 항공작전 역량을 크게 증진했다. 군복을 벗은 뒤에는 교통부 장관, 제9대 국회의원, 독립기념관 초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 이영하 회원, 코리아파워 리더 대상 및 국제환경문화 가이아 대상 수상



이영하 회원(예 중장, 공사 22기, 다사랑월드 이사장, 이치저널포럼 이사장)이 6월 27일 코리아파워 리더대상 선정위원회

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7월 8일에는 세계환경을림픽위원회가 주관한 제22회 대한민국 환경문화 대상(전국대회) 및 2024 국제환경문화 가이아 대상(국제대회) 국가안보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 공군ROTC장교회, 정기총회 및 사단법인 창립총회



공군 ROTC장교회(회장 김석찬)는 5월 30일 공군호텔에서 회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총회 및 사단법인 창립 창

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인사말에 이어 회무보고 및 사단법인 창립을 위한 의제를 심의했다.//

### 공군부사관전우회 제 305관제대대 위문

공군부사관전우회 차주성 회장의 임원 일행은 4월 24일 공군 제305관제대대를 방문하여 부대장과 환담을 나누고 위문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차 회장은 “영공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 덕택으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충주체력단련장에서 제7회 부사관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의 단합과 아울러 전우회 가입 독



려활동을 펼쳤다.//

### 2024 공사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

올해 공군사관학교(공사) 입관 50주년을 맞은 선배 예비역부터 10주년을 맞이한 현역 장교까지 공사 동문 1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우애를 다졌다.

공사는 6월1일 성무연병장에서 ‘2024년 공사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입관 10·20·30·40·50주년 동문이 공사를 찾아 공군과 공사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후배 생도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공사 22·32·42·52·62기 동문과 친지, 순직 조종사 부인회 등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 앞서 동문들은 공중 근무 순직



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영원한 빛’ 추모비를 찾아 헌화·묵념했다. 임관기념식을 치른 이들은 공군박물관 등 모교를 둘러보며 학교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했다.//

### 이건완 회원, ADD 소장 취임



신임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이견완 회원(예 중장, 공사32기)이 5월 3일 취임했다.

이 신임 소장은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 공군사관학교장 등 군내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력 분야 전문가로 전역 후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국방부는 “이 신임 소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책임자”라며 “능력과 신망 있는 인사가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임명됨에 따라 국방과학 분야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공군항공과고총동창회, 1전투비행단 위문방문

공군항공과학교등학교총동창회(회장 김집흥) 임원진 3명은 5월 7일 제1전투비행단을 위문방문하고 기부금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회장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공군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황성회 정기총회

공군전우회 황성회(준사관)는 5월30일 시내 음식점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회무보고와 차기회장단 선출이 있었으며 회장에는 장 군, 부회장에는 권혁원, 박중수, 한일우 그리고 사무국장에 신승진 회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한편 중앙회장 공로상에는 이종갑 회원이 전수 받았으며, 새로 선출된 회장단 모두는 황성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학사장교골프회, 순조회에 기부금 전달

본회 산하 골프동호회 소속인 학사장교골프회(회장 송명성)는 7월 3일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 회장단을 공군호텔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누고 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학사장교골프회는 순조회 발전을위해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오고있다.//





# 공군출신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과 국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공군전우회원 일동 -

(가나다순)

 성 명	정당	지역구/비례	전역계급
 강민국 (재선)	국민의힘	경남진주 (을)	병장
 권영세 (5선)	국민의힘	서울용산	대위
 김도읍 (4선)	국민의힘	부산북구 강서(을)	일병
 김용만 (초선)	더불어 민주당	경기하남 (을)	중위
 김우영 (초선)	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 (을)	상병
 박대출 (초선)	국민의힘	경남진주 (갑)	일병
 박수민 (초선)	국민의힘	서울강남 (을)	중위
 박정하 (재선)	국민의힘	강원원주 (갑)	상병
 박주민 (3선)	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 (갑)	중위

 성 명	정당	지역구/비례	전역계급
 배준영 (재선)	국민의힘	인천중구 강화옹진	중위
 부승찬 (초선)	더불어 민주당	경기용인 (병)	소령
 신장식 (초선)	조국 혁신당	비례	상병
 우재준 (초선)	국민의힘	대구북구 (갑)	병장
 장동혁 (재선)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중위
 장종태 (초선)	더불어 민주당	대전서구 (갑)	이병
 채현일 (초선)	더불어 민주당	서울영등포 (갑)	상병
 한준호 (재선)	더불어 민주당	경기고양 (을)	병장



### 北 순항미사일·무인기 잡는 통합방공체계 시급하다

권명국 (예 공군소장, 육사 33기, 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현대 전장에서 승리의 요체는 먼저 보고(先見), 먼저 결심해서(先決), 먼저 때릴(先打) 수 있는 능력이다. 국가 방공망은 공중센서 등

특정 무기 체계만으로는 통합 방공 전투력이 창출되지 않는다.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적(敵)과 나의 능력을 통찰한 후, 이를 토대로 최적의 시간과 장소에 전력을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지휘관의 능력과 군 구조(지휘·부대·전력·병력구조)가 전투력 창출의 출발점이다. 특히 3차원 공중 공간에서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공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공 체계는 자군(自軍) 이 기주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정보 융합, 능력의 통합, 상호 운용성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각 군 중심의 방공 조직 편성, 전력 증강, 교리 개발 등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Korea Air & Missile Defense) 능력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북한 전 지역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요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면서 2022년 12월 무인기를 수도권에 침투시켜 확인한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허점을 파고들기 위하여 '화살-1형' '화살-2형' '불화살-3-31형' 등 다양한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집중적으로 감행하는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 방공망에 탄도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및 무인기 방어를 위한 연합 및 합동 교리 발전, 부족한 작전 능력

보강과 지휘 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고도화되는 북한의 공중 위협에 직면한 우리는 필연적으로 국가 방공망의 지휘·전력·병력·부대 구조와 민방위 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방공 체계가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민간 부문의 자원과 육·해·공군 가용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것인가' '저고도 항적(航跡)을 조기에 탐지하고 교전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같은 도전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합 및 합동 방공포병사령부'를 창설해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방공 무기를 통합 운용하고 항공기와 재난에 대한 경보체계 중심인 민방공 체계에 탄도탄 경보체계를 결합하며, 적정 규모의 대피 및 방호 시설을 구축하고 대피 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통합 방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022년 이후 2년 이상 지속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모두 거미줄과 같은 방공망에 막혀 누구도 우세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과 무인기 전쟁 시대인 현대전에서 부실한 국가 방공망으로는 튼튼한 국방을 보장할 수 없다. 역사에서 실패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거나 변해야 할 때 자군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변하지 않으면 유사시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처럼 강력한 국가 방공망이 전쟁 양상을 바꿔놓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 군은 국가 방공망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를 미래지향적 다차원 위협 대응 통합 체계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적 격차가 벌어졌고 남북한 긴장 국면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은 늘 팬텀기가 담당하였다. 간첩선 격침작전, 소련과 중국 정찰기 격퇴작전, 적의 도발을 억제한 한미연합훈련 등을 모두 팬텀기가 담당하였다. 이를 그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늘의 도깨비(Phantom)'였다.

이날 진정한 영웅은 따로 있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팬텀기를 몰며 영공을 수호하다 산화한 순직조종사 43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추모하였다. 모두 숙연해졌다. 전투기 조종은 매번 목숨을 거는 임무다. 어느 기종이든지 순직조종사가 나온다. 기체가 아무리 좋아도 조종 자체가 고난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퇴역식 단상 가장 가운데 모셔졌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군인이 퇴역할 때는 전역식을 한다. 그러나 전투기가 퇴역하며 이를 기리는 퇴역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팬텀기는 국민의 마음 깊이 새겨진 대한민국 수호자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자 온 국민이 성금을 모아 팬텀기를 추가도입하였다. '방위성금헌납기'였다. 이 팬텀기는 당시 전국을 순회비행하며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영공수호 의지를 다졌다. 그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나라를 지켰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팬텀기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도깨비처럼 의인화되었다. 국민의 사랑으로 생명체가 된 것이다. 그냥 사라질 수는 없는 호국영웅이다.

국방부 장관의 출격명령을 받고 마지막 비행을 마친 조종사들이 조종간을 반납하는 순간이 공식적인 팬텀기 시대의 영광스러운 마무리였다.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국방부장관은 팬텀기에게 '전역장'을 수여하고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꽃다발을 헌정하였다. 최상의 정성과 최고의 명예를 표하는 역사적 팬텀기 전역식이었다. 이제

대한민국 영공수호는 세계 최강 F-35A와 조만간 도입될 국산 최첨단 전투기 KF-21이 대를 이어갈 것이다.

공식 오찬장소에서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님(97)의 회고와 축사가 있었다. 6·25 전쟁중 최초로 100회 출격을 한 영웅이다. 전투기 한 대없이 창설된 공군이 이제 막강한 공군으로 발전하는데는 수많은 도전과 희생이 있었다고 하신다. 그중 팬텀기 도입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회고하신다. 팬텀기 도입으로 전술공군이 전략공군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재우 장군님께도 인사를 드렸다. 80년대 중반 내가 한국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을 할 때 자주 모시고 자문을 받고 세미나도 여러번 함께한 소중한 인연이다. 이 장군님은 소장으로 전역하신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등을 역임하며 정보보호전문가로 대한민국 정보화에 크게 공헌하셨다. 평생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진정한 애국자다. 내 손을 꼭 잡고 나라를 위해 수십년을 변함없이 헌역으로 뛰고있으니 고맙다고 오하려 나를 격려하신다. 이 손이 바로 팬텀기 조종간을 잡았던 역사의 손이라는걸 생각하니 뜨거운 애국심이 느껴진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부대를 나오는 길에 '충의탑'이 보인다. 제 10전투비행단 창설 이래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다 순직한 장병을 추모하는 비석탑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분들의 명복을 빌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목숨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용사들 덕분이다. 이분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제 팬텀기는 명예로운 전역식을 마치고 공군비행단, 학교, 기념관 등에 전시될 예정이다. 퇴역 후에도 팬텀기의 전설은 국민의 가슴에 영원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도깨비, 팬텀기여 영원하라.//

### 잊혀져가는 6월, 호국의 달을 떠나 보내며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칼럼니스트)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의 하나로 망종(芒種)과 단오(端午), 소서(小暑)의 사이에 있으며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

다는 하지(夏至)도 지나갔다. 두 번 오는 하루는 없다. 그리고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따라서 오늘이라는 '하루', 아낌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하루뿐인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맞이해 소중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며 모두가 행복한 오늘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했다.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1985년 정부가 지정해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며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 과제로 지정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은 호국보훈의 달이 매년 지나치는 연례행사일 뿐,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있다.

그뿐인가, 일부 몰지각한 지식인들의 가짜뉴스와 막말로 호국용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심의기준이 불명확한 '민주유공자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해 정쟁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필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20~30년간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성장과 함께 그 의미가 급속히 퇴색되는 등 점차 현충일이 국민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죽음, '차별'이 있어서 안 되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개죽음, 억울한 죽음, 거룩한 죽음. 거룩한 죽음은 바로 '호국영령들'의 죽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묘역에 묻힌 고인들을 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 팬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 도깨비 영원하라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공군전우회 정책자문위원)



"하늘의 도깨비 팬텀이여 안녕, 팬텀 굿바이"

지난 55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한 팬텀기 퇴역식이 열렸다. 2024년 6월 7일 퇴역식이 열린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전역 팬텀기 조종사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단연 눈길을 끈 인물은 이재우 장군(90, 공사5기)이었다. 이 장군은 1969년 중령 시절 미국에서 팬텀기를 몰고온 전투기 조종사다. 당시 한반도 안보상황이 긴박해지자 박정희 대통령의 끈질긴 요구와 협상에 따라 미국은 대한민국에 팬텀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다. 이 중령 일행 여섯명은 미국에 건너가 팬텀기 조종교육을 받고 직책을 맡고 태평양을 건너 왔다. 이들이 대한민국 팬텀기 시대를 연 영웅들이다. 55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이 장군이 유일한 생존자다. 이날 이 장군이 마지막 비행을 마친 팬텀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팬텀 굿바이' 고별인사를 하였다.

당시 최첨단 전투기인 팬텀기는 미국이 보안상 해외판매를 꺼려 동맹국 중에도 영국 이란에게만 판매한 상태였다. 팬텀기는 차원이 다른 세계최강 전투기였다.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전투기 전폭기 정찰기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종결자 기종이었다. 항공기 전문가들은 팬텀기는 디자인부터 차원이 다르다고 말한다. 적에게는 공포심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위용을 갖췄다. 5세대 전투기인 F-22나 F-35는 스텔스 기능때문에 기체가 각이 잡혀있다. 이런 전투기가 나오기전 탄생한 기종 중에는 가장 빼어난 모습을 갖춘 전투기가 팬텀기다. 무장장착을 한 육중한 기체가 폭음을 울리며 출격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가슴이 뛰었다.

팬텀기 도입으로 남북한 공군력은 압도